

IV. 主要 經濟 懸案

1. 國際收支 惡化와 外換 危機 可能性

- (外換 危機의 擡頭 背景) 최근 한국 경제는 經常收支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고 資本收支까지 악화되면서 外換保有額이 감소하고 있고 더욱이 總外債 역시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外換 危機 可能性(급격한 원화 절하 또는 환율 결정 제도의 변경)이 확대되고 있음
- (外換 危機의 可能性) 여러 지표상으로는 94년 멕시코의 경우와 비교하여 한국의 현재 상황은 양호한 편으로 판단되며 通貨 防禦力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經常收支 악화 추세가 가속된다면 국제 금융 시장에서 한국의 신용도가 떨어지게 될 것이므로 향후 추세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것임
- (示唆點) 외환위기 가능성은 일단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원화 절하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 확대가 어느 정도 저지되는 효과가 예상되나 외채부담 및 해외자금 조달 부담 증가 등 부정적인 영향도 커질 전망이다

경상수지 적자 확대와 자본수지 악화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감소하고 총외채가 증가하는 등 외환위기 가능성 대두

- (外換 危機의 擡頭 背景) 최근 경상수지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고 자본수지까지 악화되면서 외환보유액이 감소하고 있고 더욱이 총외채 역시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외환 위기 가능성(급격한 원화 절하 또는 환율 결정 제도의 변경)이 확대되고 있음
 - 1996년 1월~10월까지의 경상수지 적자는 195.0억 달러를 기록 작년 보다(84.2억) 2배이상 크게 확대
 - 장기 자본수지는 96년 2/4분기의 경우 42.5억 달러였으나, 3/4분기에는 26.1억 달러로 떨어졌음. 더욱이 단기 자본수지의 경우는 원금상환 압박과 외상거래 결제 등의 이유로 -17.1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자본유입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와 자본 유입의 감소로 외환보유액도 줄어들고 있음
 - 외환보유액은 1996년 9월 328.1억 달러에서 10월에는 322.3억 달러로 6.1억 달러 감소하였음

- 총외채 역시 1996년 1천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됨. 더욱이 단기 외채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외환 당국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총외채는 9백74억달러인데 그중 58.5%가 1년 미만의 단기의 채(5백70억 달러)임

< 최근 국제수지, 외환보유액 및 총외채 동향 >

(억 달러)

	1995년		1996년		
	10월	1-10월	9월	10월	1-10월
경상수지	-3.4	-84.2	-14.1	-24.1	-195.0
무역수지	-0.1	-51.2	-8.1	-17.2	-125.8
무역외수지	-2.9	-28.8	-5.1	-6.3	-60.9
이전수지	-0.5	-4.2	-0.9	-0.7	-8.3
자분수지	3.0	103.0	-0.6	11.3	145.1
외환보유액	327.1 (95년말)	-	328.4	322.3	-
총외채	790 (95년말)	-	974 (8월말)	-	-

자료 : 한국은행

한국 경제의 상황은 94년 멕시코 위기와 비교할 때 심각한 수준은 아님

- (外換 危機의 可能性) 94년의 멕시코 경제와 비교했을 때 한국 경제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 한국의 경우 지표상으로 통화방어 능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현재 악화일로에 있는 경상수지 적자, 단기부채의 증가, 투자와 소비의 불일치, 외환보유액의 감소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음
- 94년 멕시코와 현재의 한국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GDP대비 경상수지 적자가 94년 멕시코의 경우 7.8% 였음. 반면 현재 한국의 경우는 2.3% 정도임
- 전반적으로 GDP대비 경상수지 적자가 5%를 넘어섰을 경우 위험한 징후라고 판단됨(IMF의 Goldstein 주장)
- 외채의 경우 94년 멕시코는 GDP대비 35%였으나

- 현재 한국은 그보다 크게 낮은 17%임
- 단기부채 대비 외환보유액 역시 94년 멕시코가 20%를 보인 반면 현재 한국은 170%를 나타내고 있어 위험한 수준은 아님

<한국(1996년)¹⁾과 멕시코 경제(1994년)의 비교>

	한국	멕시코
단기부채 대비 외환보유액	170	20
수입금액 대비 외환보유액	3.2	1.0
GDP대비 외채	17	35
GDP대비 경상수지 적자	2.3	7.8
GDP대비 국내저축	32	15
GDP대비 재정수지	1.0	-0.7
GDP대비 해외직접투자와 경상수지의 합	-2.1	-5.6
환율의 고평가 정도 ²⁾	19	5
연간 통화증가율	15	23

자료 : Economist誌, 96.8.24에서 轉載

주 : 1) 가장 최근치 및 전망치

2) Big Mac 지수 기준

원화 절하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경상수지 적자 확대를 저지하는 효과가 예상되나 외채부담 및 해외자금 조달부담 증가 등 부정적인 영향도 커질 전망

○ (示唆點)

- 외환위기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최근 확대되고 있는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적자에 따른 종합수지 적자는 원화절하 추세를 유도할 것임
- 최근 달러화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볼 때 고평가되어 있다고 지적되고 있음(Big Mac 지수에 의하면 19% 정도임)
- 원화의 고평가는 경상수지의 적자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원화절하는 경상수지 적자 확대를 어느 정도 저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외채부담의 증가 또는 기업의 해외자금 조달 부담 증가와 같은 부정적인 효과도 있음
- 단기간의 급속한 원화 가치 하락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원화 신뢰도를 떨어뜨려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양두용, 김연호)